

완산학원 정상화 '우려 목소리 크다'

완산여고 교장 중임 문제로 완산학원과 교육청 '이견'

완산여고 교장 중임 문제를 두고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와 전북교육청 간의 이견이 있어 학교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먼저, 학교법인 완산학원 정상화를 위한 제1기 임시이사회의 3년 활동이 오는 9월 9일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르면 제1기 임시이사회는 지난 3년 간 완산학원 구 재단의 비리적 결, 학생 자치회 및 학부모회 활성화 등 학교자치 토대 마련, 그리고 완산여고 실내체육관 증축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기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 재단의 횡령금 회피수 등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2기 임시이사회 및 전북교육청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현 완산여고 교장의 중임 문제다. 현 임시이사회에



완산학원 임시이사회 차상철 이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이사들이 22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단 등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재응모 평가절차에 문제가 없기에 현 교장을 중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 완산여고 교장은 그동안 꾸준한 민원제기로 인해 현재 도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교장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교장 중임 문제는 절차상 2기 임시이사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22일 도교육청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학원 정상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완산여고는 학생인권 감소와 특성학교 기피 현상 등으로 학생 유치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일반고로의 전환을 신청했으나, 전북교육청의 불허로 일관된 전환이 유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학교구조 개편의 적기라 판단된다며, 전북교육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완산여고는 신규교사를 대폭 채용할 수 있는 기회와 맞물려 있고, 2023년부터 건물을 개축함으로써 일반고 전환을 하더라도 남녀공학에 맞는 건물로 개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전주 평화동 지역 주민들이 일반고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임시이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산여고의 정상화 과정에 있어 특성화고로서 미래학교 모델로 발전시키려 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설립자 일가의 수습임대의 학교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구 재단의 비리로 2019년 9월부터 파견됐다. 이후 3년 동안 임시이사회는 완산학원의 안정화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장은성 기자



22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

전북대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학사 1034명 · 석사 349명 · 박사 140명 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2일 오전 10시 삼성문화회관에서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부를 시작으로 삼성문화회관까지 이어진 학사행렬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좌자 및 학무위원, 역대 총장단 정영택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원 총장은 이날 1,034명의 학사와 349명의 석사, 140명의 박사 등 모두 1,523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강명신 학생(농생대 농업경제융합학과) 외 91명이 우수졸업생으로 선정됐고, 최예솔 학생(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외 6명이 핵심인재상을 받았다. 또한 이주승 박사(공대 나노융합공학부) 등 10명이 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전북대는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19~24일까지 건지광장과 중앙도서관, 삼성문화회관 등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삼성문화회관 등에 유학생 전용 포토존도 만들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장을 찾은 졸업생과 가족들은 포토존을 찾아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등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활기찬 졸업식을 연출했다.

이날 김동원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맞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대민이 돼 주길 바란다"면서 "배려와 존중의 삶, 긍정적인 사고, 도전과 응전을 강조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5일까지 을지연습 실시

전시 대비훈련 · 심폐소생술 교육 등 비상시 긴급대응능력 강화 중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25일까지 4일간 2022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 등 국가 위기 발생 시 정부기반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연습으로, 도교육청은 물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이 참여한다.

올해는 한반도 주변국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보 위협 및 전시 재난 위험을 동시 대비하는데 중점을 뒀다.

전시상황에 대비해서는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 전시 직제편성훈련과 시 상동원학교 재배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전시 재난위기상황 대응훈련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할 수



전북도교육청이 25일까지 을지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간부진이 22일 오전 최초 상황보고에 참여하고 있다.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적의 화학방공격이나 방사선 유출 등에 대비한 전 직원 방독면 착용훈련,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진압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

인용 소화가 사용훈련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을 실시, 을지연습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하

도록 했다. 또한 을지연습 기간 중 전 직원에게 전주시립으로 비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예비창업자 성공적 기술창업 기반 구축

호남권 지식재산센터들과 협약... 창업자 지원 도모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제공 등 기술력 확보 전문 지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 교수)은 최근 전북지식재산센터, 호남권 지식재산센터, 전주지식재산센터, 제주지식재산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 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발굴 및 지원, 창업 지원사업 공동 연계 운영, 인적 교류,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공사례 공동 발굴 등 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혁신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기업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최근 전북지식재산센터, 호남권 지식재산센터, 전주지식재산센터, 제주지식재산센터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정신, 지식재산권 창출, 지식재산권 유지,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자

금 확보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기술력 확보를 전문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호남 권역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창업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더불어 호남권에서 전북대의 창업 지원 역할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대규 단장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과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지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발굴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진로상담사 1급 자격 과정 운영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이상행)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진로상담사 1급 자격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대학에서 진로상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진로상담 접근 방법, 도구를 활용한 진로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상담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진로상담사 1급 자격과정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상담, △진로취업상

담 가법, △진로코칭 방법, △진로검사와 해설방법으로 구성해 학생들 할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진로상담사 1급 자격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필기시험을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인 '진로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해 진로지도 교과목, 진로상담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6일 '전북학 학술대회' 개최

'근현대 전북지역 혁신집단의 형성과 영향' 주제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원(연구소장 이인호)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익산왕도미래유산센터에서 '2022년 전북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소속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원 센터의 학술지원 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다.

'근현대 전북지역 혁신집단의 형성과 영향' 주제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에는 서승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의 개회사와 정영달 명예총장, 박창신

원로 신부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손인범 우리배움터 교장이 전북 익산지역 사회운동의 형성과 혁신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예정이다.

남천현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전북지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고 고찰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며 "전북학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학으로서 더욱 확실하게 자리 잡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예술중 · 고 설립자 유죄판결, 즉각 사퇴하고 임시이사 파견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사립학교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의무 다해야" 주장

전교조 전북지부는 22일 '전주예술중 · 고 설립자 유죄판결, 즉각 사퇴하고 임시이사 파견하라'며 성명을 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전주예술중 · 고 설립자 H씨의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H씨는 재단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8년 이후 교직원들의 임금을 상당 부분 미지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4월에도 이번 판결과

는 다른 기간 동안의 임금체불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히 H씨와 학교법인 '성 · 안나 교육재단'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과나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사들을 탄압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6명의 교사를 부당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했으나, 복직 과정에서 진

행한 교문 앞 집회에 대해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당해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지난해 두 달 넘게 학생들이 단전 · 단수사태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했다.

이들은 교육여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 현재의 이사장체제로는 도저히 학교의 당면과제 해결은 물론 존속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라 학생 ·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과 전북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전북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 · 고 뿐만 아니라 전북의 여러 사립학교 재단들이 최근 새 교육감 체제를 틈타 부패 · 비리와 비민주적 학교 운영으로 화귀하려 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사립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학진담조직 구성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기준 '적합'

도교육청, 납품업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 108건 모두 안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7~18일 2일 간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학교급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산물 20개 품목을 수거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요오드와 세슘의 방사능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매일 유 · 초 · 중 · 고

미 특수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중금속, 가공품 GMD 검사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날까지 실시한 도내 수산물 납품업체 대상 방사능(요오드, 세슘) 및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검사에서 검사 품목 108건 모두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성 기자